ISSN 1727—9062

차 례

주체113(2024)년 5월호

제417호
주체78(1989)년 8월 창간

표지: 장수산의 현암

천태만상의 기암절벽과 수많은 봉우리들로 절경을 이루고있어 예로부터 황해금강으로 불리운 장수산.
바위중턱에 기묘하게 들어앉은 현암은 자연풍치와 어울려 명산의 이채로움을 더해주고있다.

본사기자 김혁철

2

16

22

26

30

32

48

편집: 김광수, 최은혁, 로윤경

부흥강국의 전면적발전기를 상징하는 인민의 리상거리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면적국가부흥시대를 상징하는 기념비적실체로 웅장화려하게 솟아난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이 4월 16일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장에 도착하시자 하늘땅을 진감하는 열광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내각총리인 김덕훈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 내각, 무력기관, 성, 중앙기관 일군들, 건설자들, 평양시안의 근로자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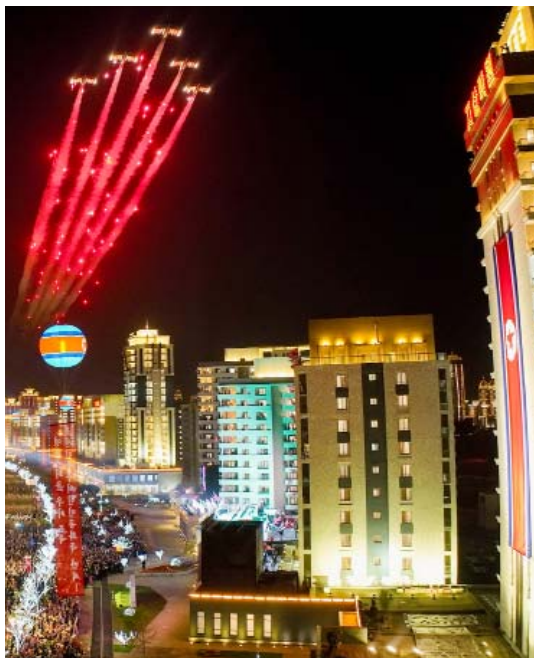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리일환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임에 따라 그는 수도건설사에 특기할 전변의 또 한페지를 새기며 솟아오른 림흥거리의 현대적인 새 살림집들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된 평양시민들을 열렬히 축하하고 뜻깊은 4월의 《새집들이계절》을 또다시 마련한 전체 건설자들과 련관부문의 일군들, 근로자들에게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충심으로 되는 감사와 전투적인사를 보내였다.

그는 2023년의 투쟁방향을 책정하는 당중앙전원회의에서 화성지구 2단계 구역을 현대미를 자랑하는 특색있는 거리로 일떠세울 대건설작전을 펼쳐주시고 착공의 날에는 몸소 건설의 첫삽을 뜨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을 앞둔 시기에 또다시 건설장을 찾으시여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게 마무리공정까지 완벽하게 결속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새로 일떠선 림흥거리는 창조와 건설의 전 과정을 인민을 위한 절대적인 복무로 일관시키시고 우리 인민에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것만을 안겨주시려는 원수님의 열화의 진정이 안아올린 위민헌신의 응결체이며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의 숭고함과 뜨거움의 세계를 후세토록 길이 전해갈 기념비적건축물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화성전역의 전체 건설자들이 당중앙이 밝혀준 3단계, 4단계의 투쟁목표수행에 총궐기하여 훌륭한 새 거리들을 일떠세움으로써 사회주의문명발전을 계속 앞장에서 선도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모두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가장 아름다운 사회주의락원으로 전변될 우리 수도, 우리 국가의 휘황한 래일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사랑하는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려정에 영원불멸할 화폭이 펼쳐진 준공식장에 우렁찬 《만세!》의 함성과 환희의 축포가 터져오르고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라 화성지구를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을 기념하는 공연이 있었다.

인민이 바라는 모든 숙망이 생활로, 현실로 되는 고마운 사회주의조국, 위대한 어버이를 모신 강국조선의 국가가 장중히 울려퍼지는 준공식장은 애국열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당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복락을 누리는 수도시민들에게 보내는 축복의 꽃보라인양 비행대가 림흥거리의 밤하늘을 날으며 황홀한 불보라를 뿌리였다.

우리 국가, 우리 인민특유의 고상한 정서가 끝없이 흐르는 아름다운 수도의 밤, 희한한 호화거리에 《지새지 말아다오 평양의 밤아》의 은은한 노래선률이 울려퍼지는 속에 경축의 축포가 또다시 터져올라 새 거리의 야경을 더욱 광휘롭게 단장하였다.

공연이 끝나자 준공식장은 또다시 우렁찬 환호의 바다로 화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불과 세해사이에 3만세대가 훨씬 넘는 현대적인 살림집을 일떠세운 미더운 수도건설자들이 앞으로도 순결한 애국충성과 혁명적기개로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수도건설 5개년계획의 다음단계 목표들을 계속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수도 평양을 명실공히 강국조선의 위상에 어울리는 세계적인 문명도시로 전변시키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경사로운 4월에 림흥거리의 새 살림집을 받아안은 모든 가정들에 행복이 깃들기를 충심으로 기원하시며 따뜻이 축복해주시였다.

어머니당의 하늘같은 은정에 감격을 금치 못하는 새 거리의 주인들과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인민에게 이 세상 최고의 문명, 최대의 복리를 안겨주시기 위해 불철주야의 사색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오래도록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의 준공은 위대한 당중앙의 령도따라 애국의 힘, 단결의 힘을 남김없이 떨치며 당 제8차대회가 내세운 투쟁목표 달성을 향해 용진해나아가는 전인민적총진군대오에 광명한 래일에 대한 확신을 백배해주고 주체의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필승불패성을 다시한번 만방에 과시하는 의의깊은 계기로 된다.

* * *

조선로동당의 본태, 본도

지난 2월 화성지구 3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이 진행되였다. 착공식에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수도건설 5개년계획완수의 승산을 확정짓기 위한 대건설이 선포되였다.

해마다 2월이면 당해년도 대건설의 착수를 알리는 장쾌한 포성이 울려퍼지고 4월에는 새집들이경사로 온 나라가 흥성이는것은 우리 국가특유의 생활로, 정서로 되였다. 자랑찬 창조의 길에서 평양은 강국의 위상에 걸맞게 날로 일신되고 인민의 행복은 더해지고있으며 이는 만난시련속에서도 문명부강할 래일을 확신성있게 앞당겨가는 사회주의조선의 전진기상에 대한 뚜렷한 실증으로 된다.

공화국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세기적인 위업들을 강력히 추진하는것과 동시에 대규모의 살림집건설을 드팀없이 련이어 내미는것은 인민의 요구와 념원을 실현함에 모든것을 지향복종시키는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의 발현이다.

조선로동당은 훌륭한 집에서 문명하게 살고싶어하는 인민의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우리 나라를 살림집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한 나라로 만드는것을 건설정책의 중핵으로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거창한 사업을 련이어 전개해나가고있다.

애로와 난관이 그 어느때보다 혹심한 상황에서 어느 한두 지역도 아니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동시에 살림집건설을 진행한다는것자체가 대용단이다. 특히 조국에서 살림집은 국가의 부담으로 건설되고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배정되는것으로 하여 이것은 사실상 막대한 경제적부담을 전제로 하고있다.

그러나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존재방식으로 내세운 조선로동당은 억만금을 아낌없이 기울여 수도와 지방에 새 거리, 새 살림집들을 일떠세우고 인민들에게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주고있으며 날이 감에 따라 현대적인 살림집건설을 더욱 통이 크게 내밀고있다. 조국의 곳곳에서 끊임없이 진행되는 새집들이는 모든 정책작성과 집행에서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조선로동당만이 펼칠수 있는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숭고한 화폭이다.

거창한 살림집건설은 인민이 바란다면 저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진행되고있다.

일찌기 그이께서는 주체102(2013)년 12월 8일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강령적인 서한에서 건설은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는 만년대계의 애국위업이며 나라의 경제적위력과 문명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평양시를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도시로 일떠세우며 지방들에서도 건설의 불바람을 일으켜 도, 시, 군들을 자기의 얼굴이 살아나게 특색있고 아름답게 꾸려 온 나라를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킬 구상을 펼치시였다.

그이의 령도에 의해 창전거리, 은하과학자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건설이 힘있게 벌어졌으며 이 거리들은 착공한지 1년도 안되는 기간에 완공되였다. 그리고 삼지연시가 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로 꾸려졌다.

그이의 드팀없는 신조에 의하여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이 힘있게 추진되여 지난 3년동안에만도 송화거리 1만세대 살림집건설,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와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 대평지구 살림집건설이 힘있게 벌어져 완공되였으며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가 일떠섰다. 검덕지구에 산악협곡도시가 일떠서고 전국적범위에서 농촌살림집건설이 통이 크게 전개되였다.

지금 수도에서는 화성지구 3단계 살림집건설이 힘있게 벌어지고 전국적으로 지방들마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농촌살림집건설들이 계속 진행되고있다.

거창한 살림집건설이 벌어지는 과정에 용기와 지혜가 발휘되고 진보와 혁신이 일어나 미래에로 나아가는 조국과 인민의 힘을 더욱 증대시키고있다.

조국에서 살림집건설은 그 어떤 경제적리득을 위한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국가의 재부와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의 결과가 고스란히 근로자들자신의 복리로 되게 하는 숭고한 사업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사상최악의 불리한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인민들의 살림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완강히 전개하여 수도를 비롯한 전국의 시, 군들에 수많은 살림집들을 훌륭히 일떠세우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몸소 착공식장들에 나가시여 인민들이 행복의 보금자리에서 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분투하자고 호소하시였으며 착공의 첫삽도 뜨시였다. 그리고 중요당회의들에서 농촌살림집건설을 더욱 통이 크게 전개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농업근로자들의 생활상편의와 리해관계에 맞게 마을별로 공동축사도 건설해주고 수종이 좋은 나무들로 원림록화사업도 잘할데 대한 문제들을 세심히 밝혀주시였다.

여기에 이런 수자가 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지도해주신 송신, 송화지구 1만세대 살림집설계형성안만 해도 1 000여건에 달한다.

이것은 그이께서 수도시민들의 살림집문제해결을 위하여 얼마나 크나큰 로고를 바치시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이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고 인민의 복리를 위함에 총력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인민관에 떠받들려 내 조국은 살림집건설로 들끓고있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어제와 오늘이 몰라보게 전변되는 내 조국의 눈부신 모습에서 조국인민들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밝혀주신 휘황한 설계도따라 나아갈 때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 줄기찬 전진은 가속화될것이라는 확신에 넘쳐있다.

최영호

경루동

송화거리

화성거리

강동지구에 일떠선 《온실도시》, 《농장도시》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우정국
조선중앙통신

지난해 2월 15일 착공식을 한 대규모의 강동종합온실농장이 올해 3월 15일 완공되여 준공 및 조업하였다.

이로 하여 수도 평양의 강동지구에 《온실도시》, 《농장도시》가 생겨났다.

새로운 령역과 경지가 개척되다

강동종합온실농장은 몇해전에 완공된 련포온실농장에 비해 규모와 생산능력이 훨씬 크면서도 한세대 더 발전한 종합적인 남새생산기지이다.

외형만 보아도 원통형남새재배장치온실, 반구형유리수경온실을 비롯하여 독특한 양상의 현대적인 온실들이 끝간데없이 즐비하게 늘어서 여기가 《온실도시》라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외형에 못지 않게 온실안에는 남새생산을 위한 선진적인 기술장치들과 고도로 집약화, 최적화, 지능화된 생산공정들이 그쯘하게 갖추어져있다.

원통형남새재배장치온실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건설운영되는 첨단기술이 도입된 식물공장이다.

온실에서는 원통형남새재배장치를 리용하여 부루, 료리배추를 비롯하여 맛좋고 영양가높은 잎남새, 기능성남새들을 생산하고있다. 낮과 밤의 주기를 임의로 조절하고 온습도와 탄산가스 등 모든 환경인자들을 정밀조종하고있으며 어린모를 심어서 20여일이면 수확한다. 1년에 적어도 10여차의 수확을 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반구형유리수경온실도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있다. 특색있는 건축미를 가진 이 온실에는 재배당반을 수직으로 회전시키면서 작물의 균형적인 재배조건을 보장해주는 집약형재배장치, 다층재배장치 등이

량경사면련결식유리수경온실

반구형유리수경온실

있는데 면적이 그리 크지 않은 조건에서도 년간 10회전재배를 하여 많은 량의 남새를 생산하고있다.

각종 온실들에는 자동영양액공급체계만이 아니라 영양액회수 및 재리용공정도 전면적으로 도입되여 원가를 극력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고있다. 뿐만아니라 온실마다에는 최량화, 최적화된 환경관리와 작물영양관리를 실현할수 있는 지능화된 통합생산체계가 구축되여있다.

이곳에서 리용하고있는 남새생육상태판독기술과 온실에 꾸려진 질소물비료제조장치, 탄산가스

생산 및 공급공정 등의 기술장치와 생산공정들은 물론 재배기술도 또 한계단 비약하였다.

이러한 성과들은 국가과학원 현대화연구소,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여러 과학교육단위 과학자, 기술자들의 비상한 정열과 탐구력이 안아온것이다.

희한한 《농장도시》

강동지구의 변혁상은 온실들에서만 보게 되는것이 아니다.

종업원들이 사는 살림집지구는 각이한 모양과 색갈의 다층, 소층, 다락식살림집들이 이곳의 자연경치와 조화를 이루며 천수백세대나 줄지어 서있고 거기에 탁아소, 유치원과 학교, 문화회관, 종합진료소 등 종업원가족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문화후생시설들도 훌륭히 갖추어진 건축군을 이루고있다. 새 마을에 보금자리를 편 사람들도 이제는 이사한 때로부터 어지간히 날이 흘렀지만 지금도 마을전경을 보며 꿈만 같아 슬그머니 제 허벅다리를 꼬집어본다고 한다.

우리와 만난 한 주민은 몇해전에 련포온실농장에서 일하는 형님벌되는 친척이 그곳 농장마을

반구형유리수경온실내부

원통형남새재배장치온실내부

량경사면련결식유리수경온실내부

강동종합온실농장주택구에 보금자리를 편 종업원가족들

강동종합온실농장에 건설된 정양소와 합숙

에 입사했을 때 무척 부러워했댔는데 자기가 그보다 더 멋진 집에서 살고있다고, 평범한 근로자들을 위해 이런 좋은 집을 품들여 지어 무상으로 안겨주는 고마운 제도의 은덕에 남새풍년으로 보답하겠다고 하였다.

이곳 종업원자녀들을 위한 학교와 유치원, 탁아소들도 특색있게 건설되여 이곳을 찾는 사람들마다 찬사를 불러일으키고있다. 특히 넓은 운동장과 현대적인 체육관까지 갖춘 학교는 도시학교들 못지 않다. 그런가 하면 종업원들이 군중문화예술활동을 벌리는 문화회관과 휴식조건과 문화생활조건이 원만히 갖추어진 종합봉사시설들, 정양소 등도 구색에 맞으면서도 현대성과 편리성을 갖추고있어 예가 바로 농장마을이 아니라 《농장도시》라는 감탄이 절로 들게 하고있다.

이는 조선로동당의 웅대한 농촌건설구상에 따라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나날이 줄어들고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의 웅대한 목표가 현실로 펼쳐지고있음을 실증하고있다.

커다란 심혈과 로고속에

강동종합온실농장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심혈과 로고속에 마련된 인민사랑의 결정체이다.

사실 강동종합온실농장이 일떠서던 나날은 난관과 애로, 도전과 장애도 크고 해야 할 일감도 전례없이 많았던 시기였다.

하지만 수도시민들에게 현대적인 종합온실을 건설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결심은 확고부동하시였다.

종합온실농장건설의 직접적인 발기자, 시공주, 건설주가 되신 그이께서는 온실건설과 관련한 수십차의 가르치심을 주시였고 온실남새생산의 집약화실현에 적합한 최신농업과학기술자료들도 친히 선정하여 보내주시면서 건설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다.

그 나날 그이께서는 종합온실건설총계획안과 조감도를 비롯한 형성안만 하여도 300여건, 기술설계도면은 무려 3 280여건이나 지도해주시였다.

이렇게 자신의 심혈과 로고를 바쳐 강동종합온실농장완공을 이룩하신 그이이시였건만 준공 및 조업식의 그날에는 친히 참석하시여 모든 성과를 군인건설자들에게 돌려주시며 그들에게 뜻깊은 격려사를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생활향상을 추동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동력으로 되는 종합온실농장건설에서의 자부할만한 성과와 경험을 확대하는것은 사회주의 새 생활을 더욱 풍요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성스러운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전국적범위에서 대규모의 현대적인 온실건설을 다그치며 남새생산을 창조형산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뜻깊은 이날 그이께서는 이곳 근로자들을 위해 건설한 살림집들도 기쁨속에 돌아보시면서 그들의 행복한 앞날을 축복해주시였다.

온실에서 수확한 남새를 평양시의 남새상점들에로 실어가고있다.

남새들을 공급받는 수도시민들

건설장들에 더 많은 석재를

룡강석재가공공장에서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고있다.

올해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앞에는 수도의 살림집건설장들과 농촌살림집건설장, 지방공업공장건설장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건설장들마다에 필요한 각종 석재를 원만히 생산보장해야 할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금 그 관철을 위한 사업에 총매진하고있다.

일군들모두가 사업체계를 빈틈없이 세우고 두몫, 세몫의 일감을 맡아안고 분투하는 한편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보장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다.

혁신은 생산의 첫 공정을 맡은 원석생산단위들에서부터 일어나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중기계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여 원석생산을 다그치는 한편 새로운 광구들을 련이어 개발하고 박토처리를 선행시켜나감으로써 석재생산을 지속적으로 늘여나갈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가공단위들에서는 종업원들이 새 설비들에 빨리 정통하고 기대관리를 책임적으로 진행하도록 기술학습을 강화하고있다.

이와 함께 교대간협동을 긴밀히 하고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탐구도입하면서 석재생산량을 부쩍 끌어올리고있다.

공장에서는 제품의 질을 높이고 품종수를 늘여나가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진행하여 좋은 결실을 보고있다. 특히 새 제품개발을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힘있게 벌어져 새형의 돌공예품들이 수십가지나 개발생산되였다.

공장의 전영근지배인은 《날이 갈수록 석재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가고있다. 우리는 그에 맞게 원석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그 가공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을 내밀고있는데 그것이 완결되면 전반적인 생산능력은 보다 높아지게 될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강은순
사진 본사기자　김평

일 화

위민헌신의 나날에

자기 집을 꾸리는 심정으로

주체102(2013)년 8월 어느날 은하과학자거리건설장을 또다시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정형을 료해하시며 외벽타일붙이기가 완전히 끝난 어느한 호동의 살림집을 보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부엌과 세면장에 좋은 마감건재를 쓰고 시공도 잘하였다고 치하해주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매 방에 놓을 침대와 책상, 쏘파를 비롯한 가구들도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아주시며 우리 과학자들에게 좋은 가구들을 놓아주게 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시종 환한 웃음을 지으시였다.

한 일군이 가구생산단위들에서 더 좋은 가구들을 놓아주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하고있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집들이를 할 때 과학자들이 개인비품과 애용하는 살림도구만 가지고올수 있게 모든 조건을 충분히, 완벽하게 갖추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건설자들이 자기 집을 꾸리는 심정으로 시공에서 책임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그이의 이 당부에는 건설자들 누구나 한세대의 살림집을 일떠세워도 온갖 정성을 기울여 훌륭히 완공하여야 한다는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었다.

새로 생겨난 회전문

주체104(2015)년 9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에 새로 건설한 창광상점을 찾으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상점의 매대들을 돌아보시며 다양하고 질좋은 상품들이 가득차있고 상품진렬도 잘하였다고 하시면서 만족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이윽고 매대를 다 돌아보시고 출입구로 향하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시더니 한참이나 매대를 둘러보시였다.

잠시후 그이께서는 해당 매대출입구들에 들어오는 방향으로만 통과할수 있게 만든 회전문들을 설치해주어 사람들이 필요한 상품을 골라가지고 나올 때에는 한곳으로 나오면서 돈을 물수 있게 거기에 출납기를 놓아주라고 이르시였다.

일군들의 눈길은 약속이나 한듯 매대출입구로 향하였다.

바라볼수록 상점의 매대들에 출구와 입구를 따로 설치하지 않다나니 매대를 리용하는 사람들이 한곳으로만 드나들수 있게 설치해놓은 출입구로 해서 불편을 느낄수 있다는 생각이 갈마들었다.

그이께서는 상점을 찾는 사람들이 느낄수 있는 사소한 불편까지도 헤아려보시고 즉석에서 깨우쳐주시였던것이다.

외랑에 깃든 다심한 사랑

주체108(2019)년 10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의 날을 가까이하고있는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종합봉사건물의 실내온천장을 돌아보시고 밖으로 나오시여 야외온천장으로 향하시던 그이께서는 어느 한곳에 시선을 보내시였다.

그이께서는 려관과 봉사건물들, 야외온천장을 이어놓은 외랑을 보시며 외랑에 유리를 넣으니 보기 좋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일군들의 마음속에는 뜨거운것이 가득차올랐다.

얼마전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장을 찾으시였던 그이께서 건물들과 야외온천장을 련결하고있는 외랑을 보시며 여기에 유리를 끼워주자고, 그렇게 하면 산골의 자연경관과 어울려 보기에도 좋고 주변건물과 대조되여 련결통로라는것이 직관적으로 알릴것이라고 가르치심을 주신것이였다.

설계가들도 건설자들도 그만하면 인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외랑건설을 하였다고 만족을 느끼고있었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인민들이 눈비와 바람에 자그마한 불편과 추위라도 느낄세라 외랑에 유리를 끼워주도록 세심히 마음을 기울이시는것이였다.

참으로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을 모르시는 그이이시였다.

* * *

수정과일그릇

수정과일그릇은 주체108(2019)년 4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로씨야에 살고있는 동포 림 엘자 알렉쎄예브나가 드린 선물이다.

총사장은 TV를 통하여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대외활동소식들을 접하면서 그이의 특출한 정치실력과 위대한 사상에 깊이 매혹되게 되였다.

하여 그는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제작회사에 찾아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에 대한 자기의 다함없는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선물의 형식과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토의하였으며 선물이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되도록 최대의 성의를 기울였다.

타원형으로 된 선물의 앞뒤면에는 말 3필이, 좌우면에는 각각 잎사귀형식의 무늬들이 새겨져있다.

수정과일그릇과 련결된 받침대는 금도금한 3필의 말이 앞발을 높이 쳐들고있는 모습으로 형상되였다.

선물의 받침대에 형상된 앞발을 든 3필의 말은 승리와 전진, 완강성, 번영, 권위와 위신을 상징하였으며 수정그릇의 풀색은 행복이라는 의미를 담고있다.

*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소사하의 가을

우리는 량강구에 돌아오자 소사하에서 남만원정에 참가하지 않은 나머지인원들까지 모두 불러다가 유격대가 창건된 후 반년동안의 사업을 총화하였다. 주되는 내용은 물론 남만원정과 관련된것이였다. 유격대원들은 우리의 무장대오가 반년사이에 비약적으로 성장발전하였고 그 과정에 유격전으로써도 능히 일제를 타승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였다는것을 한결같이 인정하였다.

우리는 그 총화회의에서 유격투쟁을 새로운 단계에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부대앞에 다음과 같은 몇가지 과업을 제기하였다.

첫째, 반일인민유격대의 근거지를 왕청지구로 옮길것이다.

둘째, 중국인항일구국군과의 사업을 더욱 심도있게 전개할것이다.

셋째, 동만일대에서 급격히 확대되기 시작한 유격투쟁을 옳게 지도하며 혁명근거지창설을 다그치고 그것을 튼튼히 지켜낼것이다.

이상의 세가지 문제가운데서 제일 심각하게 론의된것은 반일인민유격대의 활동근거지를 왕청으로 옮길데 대한 문제였다.

이 문제 한가지를 가지고 안도, 연길, 화룡에서 온 군정간부들과 함께 며칠동안 내처 토의를 거듭하였다.

안도의 동무들은 활동거점을 왕청으로 옮기는데 대해서 반대하였다. 안도에서 창건된 유격대가 안도에 있어야지 무엇때문에 왕청으로 가겠는가, 유격대가 왕청으로 가고나면 안도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고 하면서 난색을 지었다. 편협한 지역감정에서 탈피하지 못한 소박한 고집이였다.

그대신 연길과 화룡에서 온 동무들은 유격대의 효시이고 원종장인 안도부대가 조선사람들이 집결되여있는 간도 한복판으로 자리를 옮기는것은 전략적견지에서 보나 지역적조건으로 보나 응당하고 시기적절한것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전투력이 제일 강한 안도부대가 왕청에 가게 되면 연길, 훈춘, 화룡을 비롯한 린접현의 유격부대들의 활동에서도 큰 전변이 일어나게 될것이라고 확언하였다.

왕청이 지역적으로 《명당자리》라는것은 안도의 동무들도 다 인정하고있었다. 왕청은 우선 국내와의 거리가 가까와서 좋았다. 대안의 륙읍지구는 《길림바람》이 많이 들어간 고장들이여서 장차 유격투쟁에 인적, 물적지원을 줄수 있는 믿음직한 원천지로 될수 있었다. 우리는 륙읍지구를 발판으로 하여 국내혁명을 앙양시킬수 있었다. 왕청일대의 군중들은 뛰여난 투쟁력과 혁명성을 가지고있었다. 그것은 독립군의 무장투쟁사에서 최고의 봉우리라고 볼수 있는 청산리전투나 봉오골전투를 지원하는데서 유감없이 발휘되였다. 왕청은 북로군정서의 활동기지였고 여기에서 활동한 수백명의 독립군과 무관학교의 학생들은 다 이 지방사람들이 가꾸어낸 오곡으로 밥을 지어먹었다.

그러나 왕청이 좋은 고장이라고 하여 무턱대고 그리로 옮겨갈수는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안도현에 근거지를 잡고 우리자신의 힘으로 유격투쟁을 개척해갈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구국군과 같이 합법적인 활동을 계속하면서 살금살금 조선사람부대들을 더 늘여나가겠는가 하는 두가지 방안을 놓고 련일 토의를 심화해나갔다.

나는 구국군과의 공동행동때문에 우리가 활동에서 좀 구속을 받는한이 있더라도 피로써 얻어낸 반일인민유격대의 합법화를 더 공고히 하고 재만조선민족을 제2의 일본인으로 보는 중국의 형제들에게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앞잡이도 아니고 척후병도 아니며 그네들이 친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무장부대는 친일이 아니라 철저한 반일을 한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 중요하다고 간주하였다.

우리는 결국 일정한 기간 구국군과 함께 활동하면서 유격대의 합법화를 계속 고수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실지투쟁을 통하여 영향력을 확대하여 무장대오를 늘여가다가 그것이 커진 다음 서로 합류하자는 안을 채택하였다.

이런 안을 확정한 다음에는 동만의 여러 지방들에 사람들을 뽑아보냈다. 연길에도 보내고 화룡에도 보내고 훈춘에도 보내고 라자구의 구국군부대들에도 유능한 공작원들을 여러명 파견하였다. 왕청에는 별동대를 하나 더 만들어서 들여보냈다. 김일룡은 안도에 떨궈두었다. 백수십명에 달했던 우리 부대는 또다시 40명 선으로 줄어들었다.

우리가 이렇게 부대를 털어서 다른 현들에 사람들을 자주 보내게 되자 동만특위의 간부들도 만족해하였다. 그들은 우리 부대가 기본부대이니만치 쭐쭐한 사람들을 선발하여 다른 지방의 유격부대들을 보강해달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요구하였다.

우리 부대가 소사하를 떠나 남만원정의 길에 오르던 그때로부터 넉달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량강구의 강하와 산야에는 하루가 다르고 이틀이 다르게 가을빛이 짙어갔다. 밤을 자고나면 여기저기에 락엽이 깔리고 그우에 서리가 내려 미구에 닥쳐올 대륙의 사나운 겨울을 예고해주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차지니 은근히 병상에 계시는 어머니가 걱정되였다. 그러나 생각뿐이였지 소사하에 다녀올 엄두는 내지 못하였다.

나는 토기점골을 다녀오고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으나 어머니와의 상봉을 계속 뒤로 미루었다.

북만으로 출발할 날자가 박두해오자 차광수는 나에게 어디서 구해들였는지 알수 없는 첩약꾸레미를 가져다주면서 토기점골에 다녀오라고 권고하였다. 내가 주저하는 기색을 보이자 그는 김성주답지 않다고 비난하면서 우리 대장이 자기 어머니도 몰라보는 사람이라면 다시는 말도 걸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렇게 되여 나는 소사하로 떠나게 되였다.

첩약을 들고가면서도 걱정되는것은 어머니가 이 약을 보시면 또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쓴다고 꾸짖지나 않겠는가 하는것이였다. 그러나 차광수가 구해보내는 약이라고 하면 어머니도 기뻐하실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내가 소사하에 있을 때 사가지고 간 좁쌀 한말은 벌써 거덜이 난지도 오랬을것이였다. 어머니가 일을 못하시는 형편이니 지금은 무슨 돈으로 어떻게 가계를 유지해가고있는지. 어머니는 산사람 입에 거미줄 치는 법은 없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어머니나 동생들이 없었던셈치고 집생각을 말라고 오금을 박았지만 사람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나 동생들을 잊고 집생각을 하지 않는다는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것은 아니였다.

(다음호에 계속)

4월의 봄을 노래한 동포예술인들

지난 4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2돐에 즈음하여 평양에서는 제33차 4월의 봄친선예술축전이 진행되였다.

수십개 나라의 이름있는 예술단, 무용단, 교예단들과 해외동포예술단들이 국제통신으로 보내여온 공연록화편집물들마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칭송하는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과 신뢰심이 짙게 어려있었다.

특히 해외동포예술인들은 4월의 봄명절을 의의있게 경축하려는 일념안고 성의껏 준비한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재일조선인예술단 예술인들은 서장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 남성독창 《조국은 원수님》을 비롯한 종목들에서 애국의 한길만을 끗끗이 걸어가려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불변의 신념을 예술적으로 훌륭히 형상하였다.

그중에서도 주체63(1974)년 1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된 공연에 참가하는 영광을 지녔던 **김일성**상계관인이며 인민배우인 홍령월(86살)이 출연한 《조국을 노래하네》는 조국인민들에게 그리움의 추억을 더해주었다.

주체91(2002)년 2월 함흥대극장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음악무용종합공연 《애국의 꽃》을 진행하고 연회에 참가하는 영광을 지녔던 인민배우 리영수의 노래도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문화국 국장인 김연주동포를 단장으로 한 재중조선인예술단의 공연도 축전무대를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여러차례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들에 참가하여 개인상(금상, 은상)을 수여받은 전적을 가지고 있는 최경호, 리상길, 한선녀, 리홍관을 비롯한 재중조선인예술단 예술인들은 혼성2중창 《영원한 그 미소》, 남성독창 《위대한 사랑의 길이여》를 비롯한 종목들에 위대한 수령님을 절절히 그리는 마음을 담았으며 녀성독창 《당을 노래하노라》 등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조선로동당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의 정을 구가하였다.

주체107(2018)년 평양에서 진행된 제1차 평양국제성악콩클에 참가하여 《눈이 내린다》를 불러 2등을 하였으며 제31차, 제32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들에 참가하여 개인상(금상)을 수여받은 재까자흐스딴조선인독창가 리 스따니슬라브는 남성독창 《우리 수령님》을 독특한 음색과 풍부한 성량으로 형상하였다.

재로씨야조선인가수들도 조선치마저고리를 입고 무대에 올라 4월의 축전무대를 환희롭게 장식하였다.

제33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보름이라는 공연기일을 마치고 막을 내리였어도 4월의 봄하늘가에 울려퍼진 동포예술인들의 위인칭송의 노래는 축전과 더불어 조국인민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울려퍼질것이다.

본사기자 엄향심

봉산군 은정리를 찾아서

봉산탈춤의 한 장면

가장들에서 자체로 탈을 제작하고있다.

조국과 멀리 떨어져 살고있는 해외동포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고있는 고향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고있을것이다.

고향소식을 보고 기쁨과 감격에 겨워 한껏 향수에 젖을 동포들의 모습을 그려보는 우리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취재길을 이어가고있다.

우리는 얼마전 황해북도 봉산군 은정리를 찾았다.

황해북도 봉산군 읍에서 수십리 떨어진 은정리는 지난날 서흥군 당현리로 불리웠다. 그 옛날 살길을 찾아 헤매이던 사람들이 보짐을 풀어놓고 숯구이로 하루하루를 연명해가던 이 고장은 논이 한뙈기도 없어 사람들이 백미구경도 하기 힘들 정도였다고 한다.

이 고장에서는 옛날부터 봉산탈춤이 유명했다. 탈춤이 이름나게 된것은 력사적연원이 오랠뿐 아니라 봉건사회에서 중이나 량반들의 부화방탕한 생활을 특색있는 춤형상으로 아주 신랄하고 날카롭게 풍자조소한것과 관련되여있다.

탈춤자랑으로 널리 알려져있던 산간벽지에 천지개벽의 새 력사가 펼쳐져 날마다 자랑이 늘어만 가고있다.

우리와 만난 리일군인 조충성은 인민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끊임없는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은덕을 전하며 그 이름도 은정리로 불리우는 이곳에는 민족문화유산을 길이 빛내여나가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다고 말하였다.

황해북도농촌경리위원회 은정축산농장만 보아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수백마리의 우량품종염소종자들이 새끼를 쳐 산판을 뒤덮고있어 장관을 이루고있었다. 젖가공기지들에서는 영양가높고 맛좋은 젖제품들이 생산되여 리는 물론 군내탁아소와 유치원들에 공급되고있다.

염소1분장이 자리잡고있는 리장산에 세운 전망대에 올라 주변야산들과 마을들을 바라보느라면 목가적인 풍경과 함께 산골에 어울리게 변모된 마을이 한눈에 안겨온다.

특히 양지바른 곳에 지역의 특성이 살아나게 즐비하게 늘어선 문화주택들은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우리는 새집의 주인들도 만나보았다. 사료2작업반 농장원들인 천홍모, 김옥실부부는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며 집구경을 시켜주었다. 따스한 해빛이 비쳐드는 아늑한 살림방들이며 부엌과 세면장 등은 생활하기에 편리하게 꾸려져있었다. 안해 김옥실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미전에 쓰고살던 집도, 이번에 번듯하게 꾸려진 새집도 나라에서 지어준 집입니다. 돈 한푼 들이지 않고 품 한자루 바치지 못하였는데 꿈만 같이 새집을 받고보니 우리 농민들처럼 복받은 사람들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들군 합니다.》

유치원과 새로 일떠선 학교에서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명랑한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울려퍼지고있었다.

그뿐이 아니다.

안골에 자리잡고있는 농민휴양소에서는 휴양생들이 다채로운 일과로 즐거운 휴양의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봉산군 은정고급중학교에서

즐거운 휴양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봉산군의 농업근로자들

은정축산농장에서 생산된 맛좋은 젖제품들이 군안의 탁아소와 유치원들에 공급되고있다.

해마다 살림이 윤택해지고 현대미를 갖춘 농촌살림집들이 련이어 일떠서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변모된 은정리의 새 모습.

해방전 일제의 군사적강점으로 나라를 빼앗긴 설음을 안고 나서자란 고향땅을 등지고 타향만리로 떠나가지 않으면 안되였던 사람들에게도 어제날 고향에 대한 애틋한 추억만은 소중히 간직하고있을것이다.

만약 그들이 오늘의 고향땅을 찾는다면 얼마나 감개무량해할것인가.

사회주의농촌건설의 휘황한 설계도에 의하여 더더욱 변모될 은정리의 래일은 또 얼마나 아름다울것인가를 그려보며 우리는 다음취재지로 향하였다.

글 본사기자 김일봉
사진 본사기자 리영철

상식

봄철 건강에 좋은 식품들

봄은 겨우내 움츠렸던 몸상태가 휴식기로부터 왕성하게 활동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이며 피곤하여 졸리고 무기력한 증세에 빠져 입맛을 잃기 쉬운 계절이기도 하다.

이러한 봄철에는 비타민과 칼시움, 철분 등 무기질이 많은 음식물을 섭취하여야 한다.

젊은 녀성들이나 성장기의 청소년들인 경우 단백질과 철성분이 부족되기 쉬우므로 닭알, 물고기, 고기, 두부 등 고단백음식을 충분히 먹는것이 좋다. 그리고 과일이나 신선한 남새, 김, 미역 등을 골고루 섭취하여야 한다.

특히 남자들속에서 나른함과 식곤증을 막자면 비타민B_1가 풍부한 콩, 보리, 팥을 비롯한 잡곡음식을 먹어야 한다.

* * *

수필

숙 원

지난 2월말 어느날이였다.

그날 TV에서는 평안남도 성천군에서 진행된 지방공업공장건설착공식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착공식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지방발전 20×10 정책》실행이라는 우리 당의 최대의 숙원과 웅지를 안고 첫삽을 박는 의식이 진행되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느라니 《숙원》이라는 두 글자가 마치 봄날처럼 따뜻하고 어머니라는 부름처럼 나의 귀가에 친근하게 들려오는것이였다.

이제는 너무나 귀에 익은 말.

언제부터였던가.

숙원이라는 말이 사랑과 정의 대명사마냥 우리 인민의 심장을 울려준것은…

몇해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위대한 우리 국가의 수도 평양에 5만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건설하는것은 수도시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우리 당이 크게 벼르고 준비해온 숙원사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말대사전》에는 숙원이라는 말이 오래전부터 품고있는 간절한 념원이나 소원이라는 뜻을 담고있다고 씌여져있다.

예로부터 조선사람들은 기와집에서 비단옷을 입고 백미밥에 고기국을 먹는것을 평생소원으로 여기여왔다.

조선로동당은 세기를 이어온 인민의 간절한 념원과 소원을 하나하나 풀어주는것을 자기의 숙원으로 간직하고 실행해나가고있다.

어느해인가 폭우와 강풍피해를 입었던 강북리 사람들이 새집을 받아안았을 때에도, 평양종합병원착공을 현지에서 선포하시고 몸소 건설의 첫삽을 뜨신 그날에도, 류경안과종합병원건설장, 중평온실농장과 함경북도양묘장건설장을 돌아보시던 그날에도 자신께서 꼭 하고싶었던 일, 조건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관계없이 반드시 걸머지고 실행하여야 할 최급선무이며 또한 가장 영예로운 혁명사업이라고 강조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이시였다.

인민의 숙원, 당의 숙원이 빛나는 현실로 꽃펴난 창조물들을 보시며 제일 큰 락과 보람을 느끼시는분이 바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이시다.

인민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잡은 소원이 무엇인가를 늘 헤아려 거기에서 일감을 찾고 그것을 정책에 담고있는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활동방식은 인민대중제일주의,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에 바탕을 두고있는것이기에 그 사랑을 받아안은 인민들모두가 진정으로 터치는 마음속고백이 사회주의만세소리로 울려나오고있는것이 아닌가.

그렇다. 인민의 숙원이 곧 어버이의 숙원으로 되고 이 숙원은 곧 국책에 담겨지는것이 바로 조국의 현실이다.

먼곳에 있는 자식, 어려움을 겪는 자식일수록 더 걱정하며 근심하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지방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는 어버이의 숙원이 그대로 하나하나의 획이 되고 글자가 되여 오늘은 《지방발전 20×10 정책》이라는 사랑의 응결체를 안아올렸다.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그 품속에 안긴 우리 인민처럼 행복하고 긍지로운 인민이 또 어데 있으랴.

천만식솔을 위해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시는 자애로운 어버이, 인민의 웃음을 국력평가의 기준으로 내세우시고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시며 위민헌신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천만로고를 생각할 때면 눈물부터 앞서는 조국인민이다.

하기에 이 땅에 사는 남녀로소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한목소리로 대답할것이다.

우리의 숙원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뿐이라고.

본사기자 연옥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배우 김순

김순은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영화인동맹 평론분과 위원, 평양연극영화대학 겸임교원이며 심사위원이기도 하다.

언제나 신인배우의 자세로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배우 김순은 개성있는 역형상으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있다.

하다면 어떻게 그가 맡은 역들을 손색없이 형상할수 있는지.

김순과 함께 배우생활을 한 동료들은 그 비결이 이악한 노력에 있다고 말하고있다.

김순에게서 특징적인것은 아무 역이나 맡으면 그의 성격적특질을 깊이있게 파악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는것이다. 그는 인물들의 각이한 개성이 구현된 참고도서와 실화작품들을 탐독하면서 자신이 직접 보고 체험할수 없었던 수많은 력사적사실들과 사람들의 성격과 심리상태, 풍속 등 배우생활에서 절실히 필요한 많은 지식을 섭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습관은 처음부터 생긴것이 아니였다. 대학을 졸업한 그는 한두편의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하면서 연기형상에 품을 넣지 않고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고향에서 어머니가 김순을 찾아왔다. 어머니는 김순과 이야기하는 과정에 딸이 단역배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러는 김순에게 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일본에서 중학까지 다닌 어머니였지만 돈이 없어 대학공부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18살나이에 홀몸으로 조국의 품에 안긴 어머니를 나라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었다. 그리고 너의 희망과 소질도 찾아주고 대학까지 졸업시켜 영화배우로 내세워주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보답하는 길에서 주인공이면 어떻고 단역이면 어떻단 말이냐. 이름있는 배우들은 단역을 소홀히 한적이 없다.

어머니의 이 말은 단역에 대한 그의 그릇된 인식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때부터 그는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다.

김순은 여러 예술영화들과 TV련속극들에 출연하여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하여 김순은 예술영화 《철산봉의 아들》, 《노래속에 꽃피는 가정》, 《살아있는 령혼들》, 《내가 본 나라》 등 많은 영화들에서 단역으로서의 자기의 개성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개성적인 연기형상을 찾아내기 위한 그의 끊임없는 노력은 부모잃은 아이들을 친자식으로 키우는 한 녀성을 원형으로 하는 예술영화 《저 하늘의 연》에서 주인공역을 훌륭하게 형상할수 있게 하였다.

영화대본에는 10여명의 아이들과 함께 있는 주인공이 아무 대사없이 웃는 장면이 있었다. 연출가는 그에게 이 장면에서는 주인공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기때문에 대사없이 미소만 지으면 된다고 하면서 그런 방향에서 할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대본을 연구한 그는 바로 이 장면에서 부모잃은 아이들을 키운것은 주인공이지만 자기들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있다는것을 뒤늦게 알고 기쁨에 넘친 녀성의 형상을 대사도 주고 얼굴표정과 눈빛, 지어 자세까지도 소홀히 하면 안된다는것을 론증하여 모두를 놀라게 하였다.

영화는 제11차 평양국제영화축전에서 축전조직위원회 특별상영상을 받았다. 여러 나라에서 온 심사원들은 김순의 역형상이 인상깊었다고 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제9차 예술인대회에 대표로도 참가하였다.

예순을 가까이한 그는 오늘도 개성적이고 진실한 연기형상을 창조하는 사업에 언제나 신인배우의 자세로 림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일봉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조선예술영화 《저 하늘의 연》은 제11차 평양국제영화축전에서 축전조직위원회 특별상영상을 받았다.

평양의 명물로 이름난 비빔밥

동포여러분,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평양의 이름난 음식에는 시원한 랭면이며 구수한 록두지짐, 뜨끈한 숭어탕과 더불어 전통음식의 하나인 비빔밥도 있습니다.

김이 문문 나는 백미밥우에 소고기볶음이며 닭알부침 그리고 갖가지 나물을 보기 좋게 놓아 비벼먹는 이 음식은 사람들 누구나가 즐겨 찾고있습니다.

얼마전 우리는 평양비빔밥이 지방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였다는 소식에 접하였습니다.

우리는 평양비빔밥을 잘하기로 소문난 고풍이 나면서도 특색있게 세워진 락랑박물관 민족식당을 찾았습니다.

책임자 정영옥은 우리를 반겨맞더니 《우리 식당에서는 예로부터 평양의 명물로 일러오는 비빔밥이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아니나다를가 식당에서는 20여가지의 민족음식을 봉사하고있는데 손님들이 즐겨 찾는것은 비빔밥이였습니다.

우리는 이 식당에서 비빔밥을 만드는 묘리를 알고싶어 취재를 심화시켰습니다.

주방장 김성녀는 우리에게 평양비빔밥 만드는 방법을 실기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먼저 백미로 되직하게 지은 밥을 그릇에 골싹하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밥우에 잘게 썬 소고기(또는 돼지고기), 록두나물, 미나리, 버섯과 불군고사리, 도라지, 송이버섯 등을 살짝 볶거나 양념에 버무린것을 색을 맞춰가며 보기 좋게 돌려담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맨우에 반숙한 닭알부침을 올려놓은 후 구운 김을 살짝 뿌려 음식을 완성하였습니다.

평양비빔밥에는 맑은 장국과 나박김치, 고추장을 곁들여 내는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영양성분과 갖가지 맛이 한데 어울려있는 비빔밥은 오랜 력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은 산신제나 부락제때에 제사를 지낸 다음 제상에 놓았던 밥을 비롯한 여러가지 찬을 한그릇에 담아먹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습관에서부터 생겨난것이 바로 비빔밥이였습니다.

그후 여러가지 음식감을 한데 섞은 밥이라는 의미에서 비빔밥을 일명 골동반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동포여러분, 우리가 전번호에 정월대보름의 별식인 오곡밥에 대해 소개하면서 밥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린것처럼 조선사람들은 오래전에 독특한 밥짓는 방법을 창조하였고 그것을 다른 나라들에 보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농업을 주되는 생업으로 하여온 조선사람들은 오랜 옛날부터 낟알로 만든 밥을 주식으로 하여오면서 그 가공방법을 부단히 발전시키는 과정에 여러가지 특색있는 밥을 만들어 식생활에 널리 리용하여왔던것입니다.

평양과 해주를 비롯한 여러 지방들에서는 비빔밥을 명절, 잔치날, 제사날 등 여러가지 의례행사뒤끝에 그리고 큰물과 가물피해, 전쟁때에도 흔히 해먹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빔밥은 전국각지에서 만들어먹었는데 그 재료와 가공방법에서는 지방과 가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평양비빔밥은 여러가지 음식감의 영양소를 골고루 흡수할수 있는 유익한 건강음식으로 인정되여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에까지 널리 보급되고있습니다.

이렇게 평양비빔밥은 우리 선조들의 슬기와 지혜가 깃들어있고 영양가에 있어서나 눈맛, 입맛에 있어서도 손꼽히기에 오늘까지 명물로 알려져왔던것입니다.

동포여러분, 이국에서도 평양비빔밥을 꼭 제손으로 만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조국을 방문하는 기회에 꼭 락랑박물관 민족식당에 들려 이곳 료리사들의 성의가 깃든 평양비빔밥을 직접 맛보십시오.

글 본사기자 연옥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상식

함흥농마국수

예로부터 함흥농마국수는 함경도의 여러 지방에서 만든 감자농마국수가운데서 가장 유명하였다.

하얗고 가늘면서도 윤기가 도는 국수사리와 감미로운 향기가 풍기는 맑은 육수, 고기와 오이, 실닭알 등으로 고명한 함흥농마국수는 평안도의 메밀랭면과도 견줄만한 이름난 음식이다.

감자농마의 국수오리는 메밀국수나 밀국수보다 질기고 윤택이 있으며 오돌오돌 씹히는것이 특징이다.

꾸미로서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꿩고기 등을 놓았으며 바다를 낀 곳에서는 명태, 가재미 등의 회를 꾸미로 쓰기도 하였다.

함흥농마국수는 오늘 국가비물질문화유산의 하나로서 인민들속에서 인기있는 음식으로 널리 리용되고있다.

*　　*　　*

조선의 단청

부재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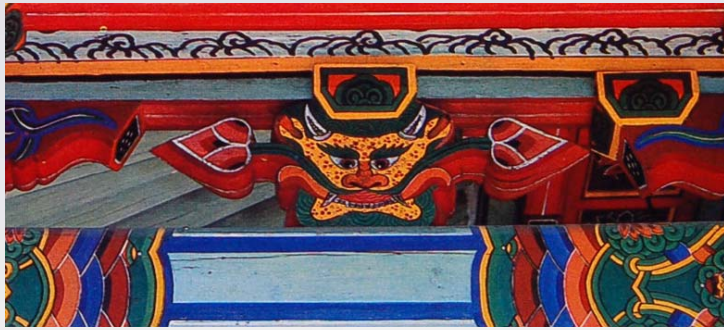
조선의 옛 건물은 목재를 포개고 쌓고 어기는 방법으로 축조되였으므로 구조가 다양하고 변화무쌍하다.

이러한 관계로 여러가지 부재장식들이 리용되였다.

각종 부재장식무늬들은 자기의 특성에 맞게 형식이 매우 다양하다.

부재장식무늬들은 특색이 있고 볼맛이 있어 단청무늬장식에서 제외될수 없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　　*　　*

련광정 란간

읍밀대 화반

백상루 화반

관음사 대웅전 불단

묘향산보현사 가운데 문조각

개국사돌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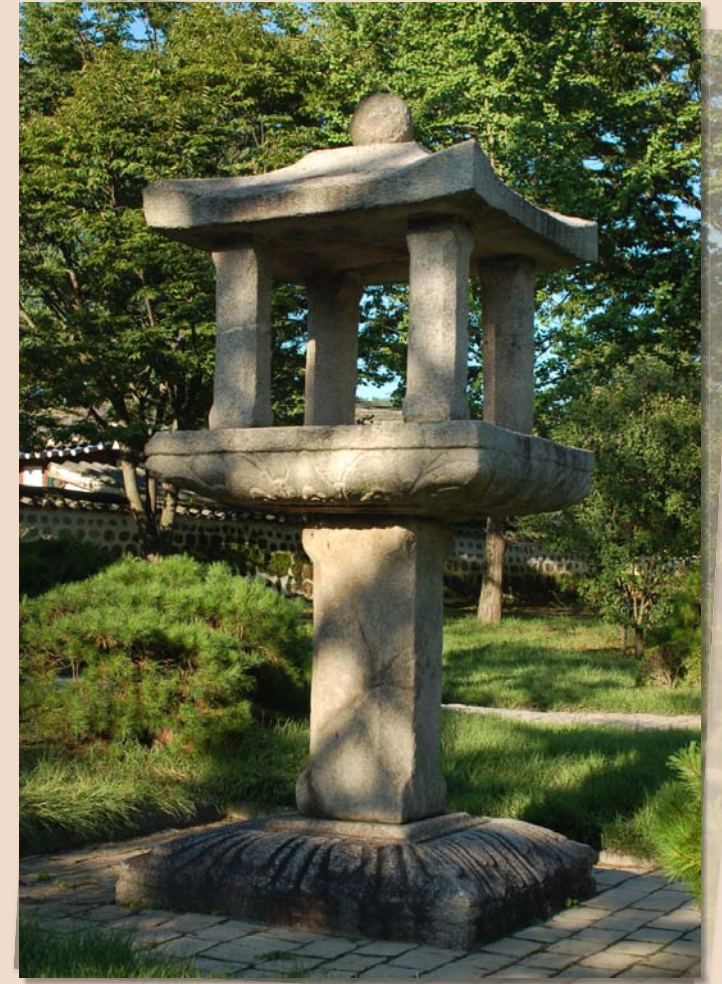
개국사는 935년에 세운 절간으로서 고려시기 10대절간의 하나로 이름높았다.

개국사돌등은 우리 나라에 남은 돌등가운데서 비교적 큰것의 하나로서 그 높이는 3.72m이다. 돌등은 받침대, 기둥, 불집과 등머리로 이루어진 4각평면의 큰 돌등이다. 돌등은 화강석을 다듬어만들었다.

4각평면으로 된 받침대 한변의 너비는 1.92m이며 그 웃면에는 엎어놓은 모양의 련꽃을 새겼다.

개국사돌등은 간결하면서도 웅건한 느낌을 주는 고려초기석조건축술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의 하나이다.

현재 이 등은 개성에 있는 고려박물관경내에 보존되여있다.

*　　*　　*

유모아

온 마을이 국맛을 볼수 있게

고기장사가 《고기 사시오.》 하며 돌아다니는데 한 녀인이 고기를 산다 하고나서는 이것저것 만져보기만 하였다.

그리고는 그 손을 씻은 물로 국을 끓이였다.

그 국을 먹은 시어머니가 《오늘 저녁국은 어찌 이리도 맛이 좋으냐.》고 물으니 녀인은 그 리유를 말하였다.

며느리의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당장에 노하며 말하였다.

《너는 다만 한때 먹는것만 아는구나. 그 손을 장독에 씻으면 1년동안 국을 맛있게 먹을것 아니냐.》

때마침 그 집에 와있던 이웃집 로파가 그 말을 듣더니 말하였다.

《여보시오. 댁에서는 욕심도 많소구려. 그 손을 우물에 가 씻으면 온 마을이 국을 달게 먹지 않겠소.》

*　　*　　*

남다른 향토애를 지닌 리성린

리성린(1718년-1777년)은 18세기 이름을 남긴 재능있는 화가이다.

그는 자를 덕후, 호를 소재라고 하였다.

도화서 화원인 그는 풍경과 인물을 잘 그렸다.

《비탈길》 114×42㎝
비단・담채

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서는 《해질녘》, 《비탈길》, 《바위밑에 선 로인》, 《장수로인》 등을 들수 있다.

은근하고 독특한 느낌을 주면서도 조화로운 필치로 아름답게 화면을 그려내는것이 그의 그림에서 보게 되는 형상적특징의 하나였다.

《해질녘》 115.5×41.5㎝
비단・담채

그는 그림에서 가까운 곳은 크고 먼곳은 작게 그려내는 원근화법의 보편적원리대로 그리는 관념에서 벗어나 먼곳에 있어도 그것이 중요하다면 강조하는 수법을 썼다.

언제인가 화가의 신분으로 어느한 나라에 갈 때 그는 조국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의 로정에서 본 각곳의 풍경들을 기록적으로 그리였다.

그는 로정을 따라가며 항상 자기가 직접 보고 한번 들린 고장들의 아름다운 풍경과 독특한 정경을 자기의 화폭에 꽉꽉 담군 하였다. 처음에는 그저 취미가 아니면 심심풀이로 그리겠거니 하고 생각한 동료들은 그의 그림에 별로 낯을 돌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쨍쨍 내려쪼이는 뙤약볕도 아랑곳없이 그림그리기에 열중하는 리성린의 곁으로 동료들중 한사람이 조용히 다가왔다.

《갈길이 아직 먼데 언제까지 계속 그릴텐가?》

동료의 말에 성린은 손에 든 붓대를 더 굳게 움켜쥐며 또박또박 힘주어 말하였다.

《이 로정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리려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겠네. 내 고향, 내 조국산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자랑하고싶단 말일세. 고향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름다운 내 고향을 더 소중히 가꾸고 지켜가도록 말일세.》

리성린의 뜻있는 말에 동료는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후 리성린의 마음을 알게 된 동료들은 리성린의 그림그리는 일을 적극 도와주었다.

복숭아꽃, 살구꽃이 피여나는 봄날인듯 산과 바다, 마을과 어선들이 한데 어울려 마치도 옛말이나 동화에서 나오는 꽃동산, 신선들이 산다는 희한하고 아름다운 동산을 그린 리성린의 그림들은 그야말로 보는 사람들을 매혹시켰다.

특히 그가 비단우에 그린 《소나무와 대》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저마다 혀를 차고 엄지손가락을 흔들지 않고서는 못견딜만큼 훌륭한것이였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조선의 화원 리성린의 그림은 정말 훌륭하다.》, 《밝은 담채의 조화, 아기자기하면서도 아담한 조형미, 이것은 지금껏 찾아볼수 없는 아주 독특한 화풍이다.》라고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이 <소나무와 대>는 내 고향의 소나무와 대를 그대로 그린것입니다. 나의 재간이 남달리 뛰여나서가 아니라 바로 내 나라, 내 조국, 내 고향의 나무이기에 이처럼 아름답고 훌륭한것입니다.》라는 대답을 들은 사람들은 그의 남다른 향토애에 깊이 감동되여 박수갈채를 아낌없이 보내주었다.

이처럼 리성린은 자기의 그림들에 향토애가 짙고 독특한 정서가 깃들도록 하였으며 높은 예술적지향과 개성적인 창작활동으로 18세기 사실주의화단을 풍만하게 장식하는데 일정하게 기여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실장 박사
부교수 강명식

장기수풀이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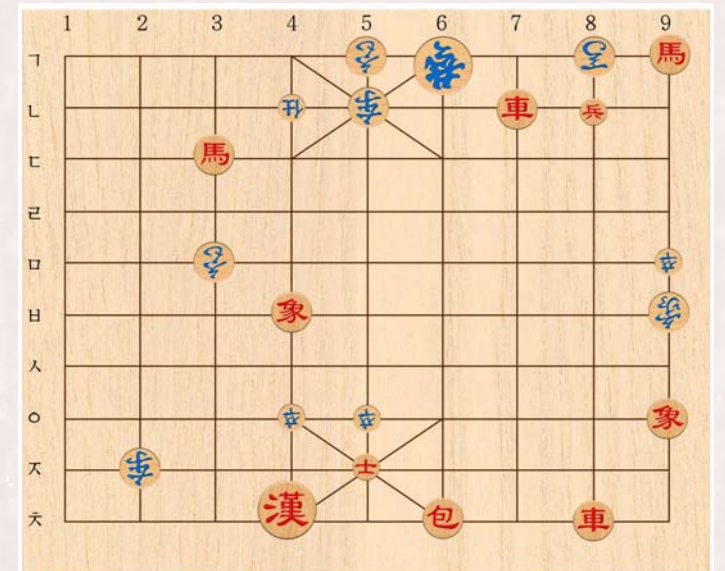
장기격언

《일수부동》

한번 옮겨놓은 쪽은 다시 쓰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 말은 한수를 써도 심중하게 생각하고 써야 하며 일단 옮겨놓은 다음에는 형세가 아무리 불리하게 되여도 물리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하고있다.

장기수풀이 (16)에 대한 답

ㄷ8말ㄴ6, ㄹ6차ㄴ6, ㅁ5차ㅁ4,
ㄷ4궁ㄴ5, ㅁ6차ㅁ5, ㄴ5궁ㄱ6,
ㅅ6상ㄹ8, ㄴ6차ㄴ7, ㅁ5차ㅁ6,
ㄱ6궁ㄱ5, ㅁ4차ㅁ5, ㄴ4차ㄴ5,
ㅁ6차ㄱ6, ㄱ5궁ㄱ6, ㅁ5차ㄴ5,
장훈

붉은색쪽이 먼저 써서 푸른색쪽을 이겨야 합니다.

봄향기

다종화, 다양화를 추진한다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여러가지 기능성화장품을 개발생산하고있다.

이 화장품들은 수요자들의 성별과 나이, 체질적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종류로 개발된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인기를 모으고있다.

공장의 연구집단은 국내와 세계의 화장품공업발전추세에 대한 분석을 심화시키는것과 함께 기능성화장품에 포함되는 각이한 성분들을 리상적으로 결합시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 그들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효과가 매우 좋은 파마크림을 개발한데 이어 속눈섭성장액, 여드름치료에 효과적인 미안막 등을 련이어 개발하였다.

한편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던 얼굴피부의 로화방지에서 효과가 큰 히알루론산을 미생물발효법으로 제조하는데 성공함으로써 기능성화장품생산의 편파성을 극복할수 있게 하였다.

이에 토대하여 공장에서는 보습용살결물, 물크림, 영양액 등 기능성화장품들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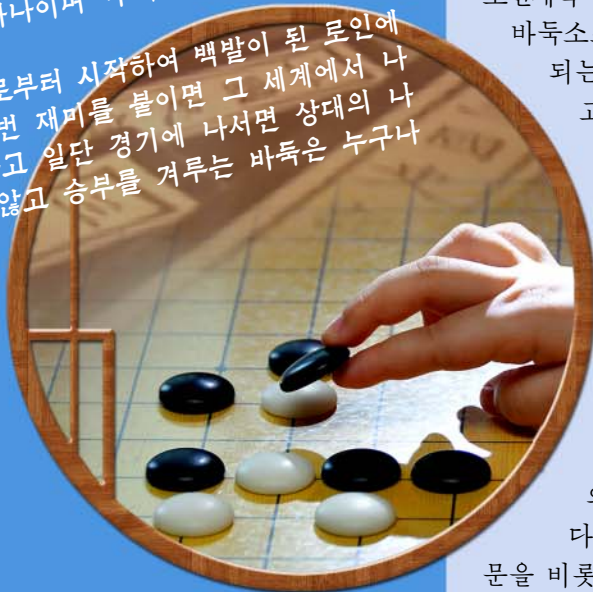
인민들이 선호하는 화장품을 더 많이 개발하기 위한 이곳 공장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의 노력은 계속되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봄향기》화장품은 프랑스, 도이췰란드, 로씨야, 중국, 몽골, 일본 등 여러 나라의 분석소들에서 제품검증을 받았다.

바둑의 매력에 이끌려

민속놀이의 하나이며 두뇌체육종목의 하나인 바둑.

3살 난 아이로부터 시작하여 백발이 된 로인에 이르기까지 한번 재미를 붙이면 그 세계에서 나오기 힘들어하고 일단 경기에 나서면 상대의 나이를 가리지 않고 승부를 겨루는 바둑은 누구나가 좋아한다.

조국의 학생소년궁전들과 학교, 유치원들마다에는 바둑을 배우는 소조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유명한것은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바둑소조이다.

이 바둑소조는 세계아마츄어바둑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순위권에 입선한 우수한 선수들을 키운 자랑을 가지고있다.

지금 이 소조를 이끌고있는 교원은 평양교원대학과 조선체육대학 박사원을 졸업한 김은정이다.

바둑소조지도교원으로 사업하는지 근 20년이 되는 그의 말에 의하면 점점 바둑을 하겠다고 지망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있어 소조원모집에 특별히 품을 들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서 바둑은 학생들의 기억력과 사고력, 집중력을 제고하는것은 물론 고상한 도덕품성을 배워주기때문에 그들의 정신적수양에서도 큰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지금 이 소조에서 바둑을 배우는 학생은 30여명이다.

은정지도교원은 소조원들에게 바둑의 기초기술을 배워주는데 모를 박고있다. 높은 수읽기능력과 단수, 량단수, 축, 문을 비롯하여 다양한 수법들을 소조원들이 활용하도록 하고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그대로 그들의 학과실력을 높이는데로 지향되도록 하고있다. 하여 만경대구역 장훈소학교 김영운학생과 만경대구역 광복소학교 김신진학생이 바둑을 배우면서부터는 집중력이 높아져 학과실력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학교적으로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들로 손꼽히게 되였다.

은정지도교원은 소조원들의 기억력제고에 특별한 힘을 넣고있다.

그는 바둑선수들의 전문기억력평가 및 훈련프로그람도 개발하였는데 이것은 기억력제고에 도움을 주는것으로 하여 주체108(2019)년에 있은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에서 1등으로 평가되였다.

현재 소조에서는 이 프로그람을 리용하여 소조원들이 기억력과 집중력을 비상히 높이고있다.

주체107(2018)년과 주체108(2019)년을 비롯하여 지난해 6월에 진행한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기대회(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부문)에 참가한 이곳 바둑소조원들은 맞다드는 상대팀선수들을 물리치고 우승을 쟁취하였다.

특히 지난해 경기에 처음으로 참가하였던 만경대구역 선내소학교 학생 리련주는 높은 수읽기로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소조를 졸업한 학생들은 체육단들과 여러 대학들에서 자기들의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승기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지난해 10월에 개건된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을 찾는 이 대학의 교원, 연구사, 학생들의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도서관은 연건축면적이 1만 1 000여㎡이며 독자들이 서가에서 직접 도서들을 선택하여 열람, 대여를 할수 있게 개가열람형식으로 꾸려졌다.

3층으로 된 과학도서관에는 열람실과 여러 형태의 학습홀, 학습토론실, 정보기술보급실이 있으며 독자들을 위한 편의봉사시설들이 갖추어져있다.

과학도서관은 외랑을 통해 대학구내의 전자도서관과 련결되여있다.

이곳을 찾는 많은 독자들은 도서관에 비치된 수많은 도서들과 최신과학기술자료들을 열람하며 미래를 설계하고 지식의 탑을 쌓아가고있다.

도서관관장 김광룡은 《나라에서 품들여 마련해준 과학도서관의 운영을 잘하여 이곳이 명실공히 대학의 교원, 연구사, 학생들을 위한 과학기술보급기지, 과외학습기지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데 적극 이바지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리영철

푸른 숲에 량심을 바쳐

록음이 우거진 푸른 숲은 멀리에서도 한눈에 안겨오지만 그 숲을 가꾸는 사람들의 모습은 쉽게 찾아볼수 없다. 허나 무성한 산림에는 반드시 그를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참된 주인들이 있다.

평안남도 평원군산림경영소 지배인 김영철도 그런 사람들중의 하나이다.

김영철이 이곳 지배인으로 임명된것은 지금으로부터 15년전이다.

그때 경영소는 나무심기실적에서 린접군들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진 상태였다. 원인은 재래식방법으로 나무모를 생산하다보니 산림조성에 필요한 나무모량을 따라세우지 못한데 있었다.

이를 해결하자면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집약화를 실현할수 있게 양묘장을 현대화하여야 하였다.

김영철지배인은 즉시 양묘장현대화에 달라붙었다. 자재와 설비를 마련하려고 신발이 닳도록 전국각지를 뛰여다녔으며 설치할 각종 설비와 조절장치들의 자동조종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과학연구단위들도 쉬임없이 찾아다니였다.

한편 그는 대중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계발시켜 원형삽목장현대화에 필요한 회전식분무기를 비롯한 설비들도 경영소자체의 힘으로 제작하였다.

김영철지배인이 앞채를 메고 헌신하는 모습은 종업원들에게 커다란 감흥을 불러일으켰고 공사를 두고 난감해하던 사람들도 양묘장현대화공사에 너도나도 떨쳐나서게 하였다.

현대화공사를 시작하여 1년남짓한 짧은 기간에 통합조종생산체계가 실현된 1 000여평의 나무모온실과 야외재배장이 일떠선데 이어 과학기술보급실, 생물농약생산기지, 기생벌생산기지, 축산기지 등도 꾸려지게 되였다.

김영철지배인은 나무모생육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연흐름식물길공사도 통이 크게 벌려 그 어떤 가물에도 끄떡없이 안전하게 나무모를 생산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도 마련하여놓았다.

그는 이에만 그치지 않고 분소들에도 양묘장들을 일떠세웠다.

결과 평원군산림경영소는 해마다 수백만그루의 나무모를 자체로 생산하여 군의 산림조성에 필요한 나무모를 충족시킬수 있게 되였다.

나무모생산에서 진전이 이룩되자 김영철지배인은 산림조성사업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양묘장현대화공사와 마찬가지로 산림조성도 여간만 힘에 부치지 않았다.

매일 왕복 수십리의 산길을 오르내리면서 나무모와 거름을 날라야 했고 심은 나무들의 사름률을 높일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느라 과학기술도서들을 뒤적이며 밤을 새운적이 그 얼마인지 모른다.

언제인가는 이런 일도 있었다. 양묘장으로부터 수십리 떨어진 야산에 잣나무모들을 심고 종업원들과 함께 어둠이 깃들어서야 산을 내리던 그는 산중턱에서 유기질비료가 들어있는 마대를 보게 되였다. 그날 운반도중에 흘린것이 분명하였다.

아무말없이 그 마대를 메고 다시 산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에게 한 종업원이 밤도 깊었는데 래일 비료를 마저 주는것이 어떤가고 이야기하였다.

그때 그는 물론 이 비료를 래일 준다고 하여 나무모의 생육에 크게 지장을 주지는 않지만 조국의 산림을 가꿔가는 우리들의 마음에는 공백이 생기게 된다고 하면서 밤늦게까지 어린 나무모들에 골고루 묻어주고야 산을 내리였다고 한다.

자기는 비록 덕을 보지 못하더라도 군안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어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하나의 생각안고 김영철지배인은 해마다 나무를 심었고 그의 발자국이 찍혀지는 곳마다에서 어린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였다.

이런 날과 달이 흐르는 속에 해마다 수백정보의 산들이 푸르러졌고 10여년이 지난 오늘에는 소나무, 잣나무, 밤나무, 창성이깔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키높이 자라게 되였다.

조국의 재부를 늘여가는데서 인생의 더없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김영철지배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나라에서는 그를 국토관리총동원운동열성자대회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의 대표로 불러주었다.

사회주의애국공로자인 김영철지배인이 종업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다.

《나무는 애국의 마음으로 심어야 한다. 나무를 심는 일이야말로 나라의 재부를 늘이는 일이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후대들을 위하여 하는 일이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북새종합진료소

주민건강관리정보체계를 통하여 주민들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료해장악하고있는 북새종합진료소의 의료일군들

전국의 말단지역들에까지 꾸려져있는 진료소들을 통하여 전체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항시적으로 장악하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것은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보건정책의 중요한 요구이다.

평양시 모란봉구역에 있는 북새종합진료소도 조국의 도처에 꾸려진 수많은 진료소들중의 하나이다.

전국의 말단지역들에까지 꾸려져있는 진료소들마다에는 호담당의사들이 있다.

호담당의사들은 자기가 담당한 주민세대들의 건강을 항시적으로 책임지고 돌보고있다.

평양시 모란봉구역 북새종합진료소에서는 호담당의사들의 역할을 더 높이기 위하여 주민건강관리정보체계를 도입하고 의료봉사를 보다 합리적으로, 효률적으로, 선진적으로 진행해나가고있다.

진료소소장 리성희는 《주민건강관리정보체계에는 우리가 담당한 북새동과 서흥동주민들의 자료가 빠짐없이 올라있는데 만성질병유무, 생활력, 가족적 및 유전적소인, 예방접종 및 진단치료, 래원, 왕진, 심방치료정형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여있다. 뿐만아니라 주민들이 어릴 때부터 앓고난 병, 취미 등도 상세히 서술되여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주민건강관리정보체계가 치료활동에서 큰 은을 나타낸다고, 간혹 지방에 출장갔다가 의식을 잃었다거나 쓰러진 경우 환자의 이름만 확인되면 그에 필요한 자료들이 전송되여 환자치료에 도움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

얼마전에도 모란봉구역 북새동에서 살고있는 김경희녀성이 지방에 있는 친척의 새집들이에 갔다가 원인모를 배아픔으로 쓰러진적이 있었는데 주민건강관리정보체계의 도움으로 그 녀성의 자료들이 해당 병원에 전송되여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하는데 긍정적 작용을 하였다.

진료소에서는 매일 주민건강관리정보체계에 건강관리부, 검진, 치료정형과 고려치료를 받은 정형도 상세히 올리고있다.

호담당의사들은 이 체계를 리용하여 자기가 담당한 주민들에 대해 세대별, 남녀별, 직업별, 나이별로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그에 맞게 검진, 치료활동을 벌려 만성질병환자들을 찾아내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고있다.

뿐만아니라 전쟁로병, 제대군관, 영예군인, 임산모들에 대한 치료에 특별한 힘을 넣고있다.

호담당의사들의 하루일과는 매우 바쁘다. 오전에는 래원하는 환자들에 대한 검진과 치료를 진행하는것과 함께 계획한 인민반들에 대한 위생선전활동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구급환자들에 대한 왕진과 일상적인 심방활동을 진행하고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심방활동을 진행한다는것은 결코 헐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호담당의사들은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이 인민들의 피부에 가닿게 하기 위해 누가 보건말건 주민들을 찾아가고있다.

모란봉구역 서흥동 57인민반에서 살고있는 전쟁로병 리현삼로인은 《매일같이 우리 집에 찾아와 혈압을 재고 좋은 보약도 가져다주는 리영옥담당의사선생을 마주할 때마다 생각이 깊어집니다. 정말 사회주의보건제도가 아니고서는 생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격정을 터뜨렸다.

진료소에서는 주민들뿐 아니라 평양교원대학부속 모란봉구역 개선유치원 어린이들과 모란봉구역 서흥소학교 학생들에 대한 치료도 진행하고있다. 김재금의사는 아이들에 대한 검진을 자주 진행하여 그들이 튼튼한 몸으로 자라나도록 하고있다.

이곳 진료소의 치과, 고려치료과 등에서도 여러 의료기구들을 개발하여 치료에 적극 리용하고있다.

하기에 이곳 의료일군들은 주민들로부터 《우리 의사선생님》으로 불리우고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중앙동물원 수족관

지금으로부터 8년전에 개건된 중앙동물원의 수족관은 외형부터 특색있다.

푸른색의 타일로 물결모양을 형상한 이곳의 외형만 보아도 수족관이라는것을 쉽게 알수 있다.

수족관은 온대민물구역, 열대민물구역, 자연풍치구역, 바다동굴구역, 바다동물접촉구역, 거부기구역으로 나누어져있다.

책임기사 림철용은 《우리 수족관에는 총 240여종에 5 700여마리의 물고기, 량서류, 파충류와 같은 동물들이 있는데 그가운데서 사람들의 남다른 관심을 끄는 물고기는 아마도 아마조나스강의 대식가인 피라니아일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발잉어목 이발잉어과에 속하는 피라니아는 일명 《이리고기》라고도 불리우는데 비록 몸길이가 30㎝밖에 안되지만 센 턱이발을 가지고있고 떼를 지어 다니면서 물속에 들어선 사람은 물론이고 황소와 같은 큰 짐승까지도 순간에 잡아먹는 사나운 물고기이다.

수족관에서는 민물은상어, 점칼고기, 아마조나스병어, 알락메기, 점무늬린골어, 은룡어, 상어메기 등 지구상의 희귀한 물고기들이 모여살고있다.

수족관에서 이채를 띠는것은 희귀한 물고기들만이 아니다.

자연풍치구역은 말그대로 폭포가 흐르는 절벽과 그밑에 맑은 물, 울창한 수림이 생동하게 형상되여있고 바다동굴구역에는 색조명효과까지 있어 바다동굴의 운치가 더욱 살아나고있다. 또 몇걸음 지나 동굴을 나서면 마치 깊은 바다속에 들어온듯 참관자들의 머리우로, 좌우로 커다란 상어가 지나가고있다.

무서워 뒤걸음치는 사람들, 그와 반면에 무서움을 모르고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드는 사람들, 바다밑풍경에 빠져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는 사람들…

이렇듯 중앙동물원 수족관에서 인민들은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다.

글 본사기자 연옥
사진 본사기자 리영철

현암의 여름

장수산열두굽이의 첫 입구 벼랑중턱에는 6세기말경에 지은 장수산에서 제일 큰 절이였던 묘음사의 부속암인 현암이 자리잡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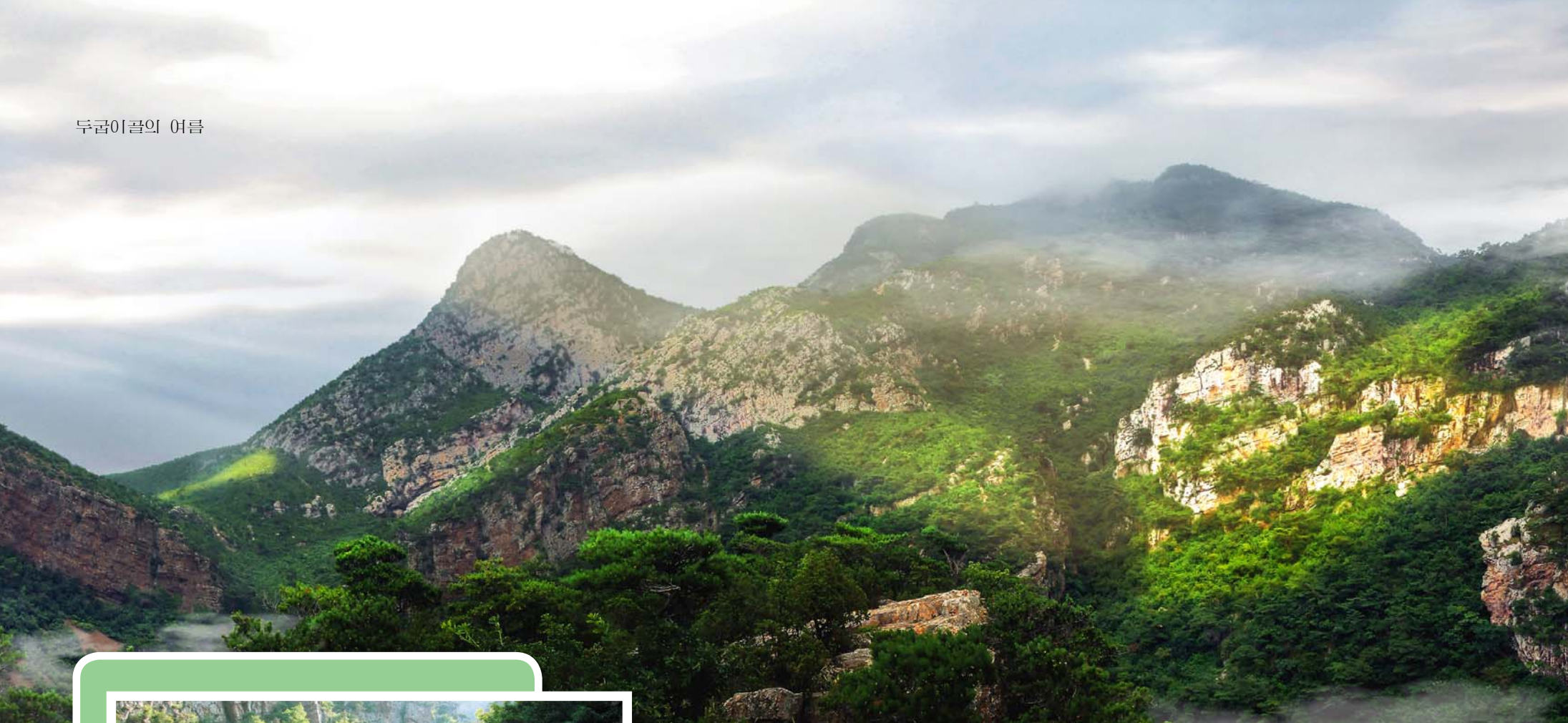
현암은 바위중턱에 매달려있는것같다고 하여 다람절이라고도 부른다.

《황해금강》으로 불리우는 아름다운 명승지의 하나인 장수산은 조국의 황해남도 재령군과 신원군사이에 있으며 해발높이는 745m이다.

장수산이라는 이름은 공기가 좋고 물이 맑으며 효능이 높은 약초가 많아서 산주변에 장수자들이 많다는데로부터 유래된것이다.

산발은 동쪽과 서쪽으로 뻗어있으며 보적봉, 관음봉, 보장봉 등 해발높이 700m안팎의 봉우리들이 잇달려 솟아있다.

산에서는 소나무, 참나무,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등이 자라며 소나무는 북쪽비탈면에, 참나무는 산등성이에 더 많이 분

두굽이골의 여름

포되여있다.

산에는 특산종인 장수만리화, 장수팽나무, 조선곰담초, 잔물푸레나무, 회나무와 같은 희귀한 식물들이 있다. 그리고 노루, 오소리, 너구리, 여우, 산토끼, 꾀꼬리, 뻐꾸기, 부엉이, 산비둘기같은 동물들이 있다. 특히 꿩이 많아 예로부터 장수산을 일명 《치악산》이라고도 불러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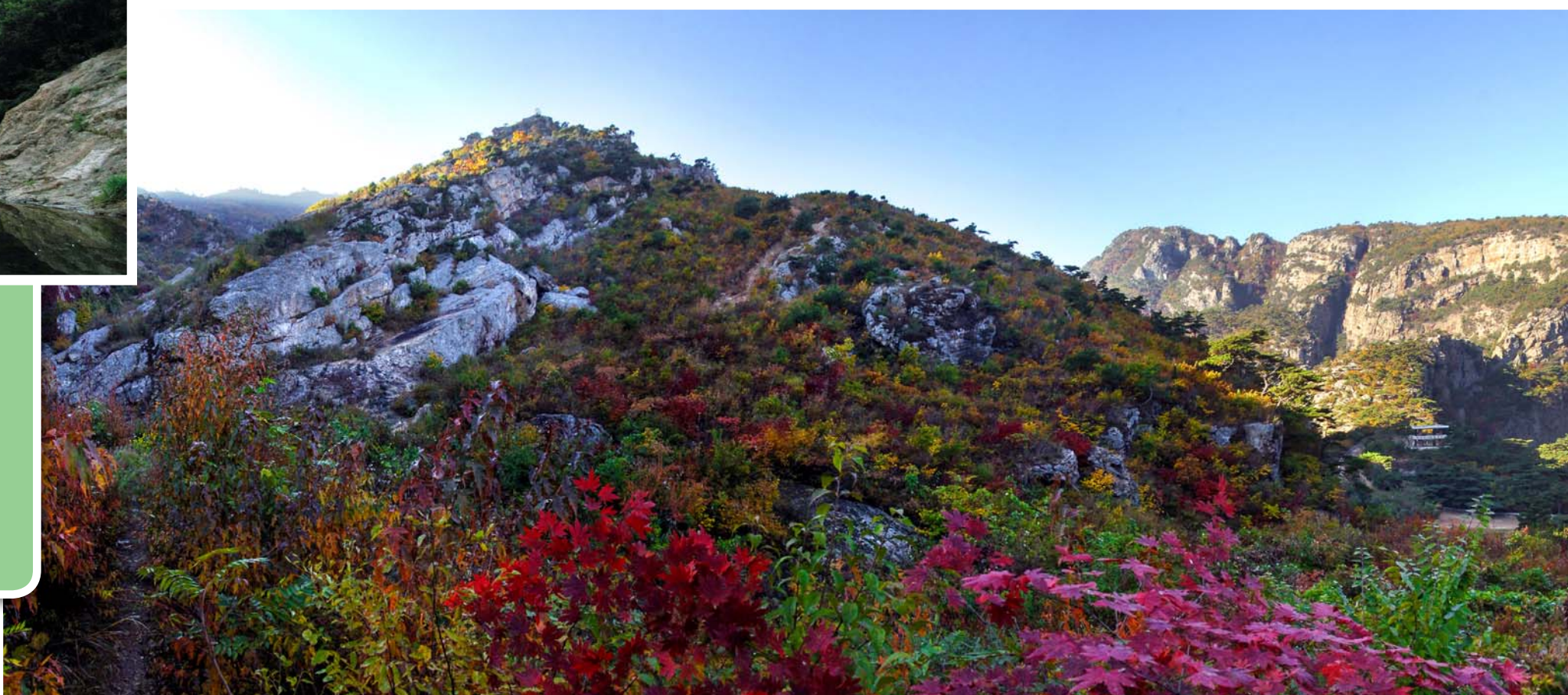
장수산의 아름다움에서 첫 손가락에 꼽는것이 골짜기풍경이다.

그 대표적인것은 장수산 서부에 이루어진 장수산열두굽이이다. 약 30리사이에 너비 50~150m의 골짜기가 있는데

두굽이골의 가을

룡소

두굽이골에 이르면 옛날 담소가 지금보다 더 넓고 깊었다고 하는 룡소가 있다.

전설에 의하면 여기에는 붉은 룡 한마리가 살고있었는데 비가 오던 어느해 장마철에 꼬리를 치며 하늘로 오를 때 어찌나 세차게 꼬리를 쳤던지 꼬리를 칠 때마다 장수산의 산굽이가 하나씩 생겨나 열두굽이를 이루었다고 전해지고있다.

열두굽이골의 가을

코끼리바위

몰래사랑바위

홰불바위

그 량쪽에는 높이 150~200m의 기묘한 층암절벽들이 열두굽이를 이루고 늘어서있어 그 모습이 장엄하면서도 황홀경을 이룬다. 골짜기로 흐르는 수정같이 맑은 물과 폭포, 못, 푸른 소나무, 붉게 물든 단풍나무 등이 잘 어울려 열두굽이의 자연미를 더한층 북돋아준다.

산에는 수리개바위, 산삼바위, 3형제바위를 비롯한 기묘한 바위들과 맑은 벽계수로 이름난 벽바위골, 가파로운 벼랑으로 된 보적봉중턱의 천길바위, 큰 바위돌이 가까이 마주서 천연돌문을 이룬 관봉석문, 자연굴들인 금은굴과 관음굴 등 많은 명소들이 있다.

장수산에는 옛날 떨어지는 물을 맞으면 어지러운 마음도 거울처럼 맑아진다고 한 세심폭포를 비롯하여 약수폭포, 수양폭포, 샘폭포 등 이름난 폭포들도 있다.

장수산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선조들은 《금강산을 동부산악지대에 군림한 산악미의 <왕자>라 한다면 장수산은 서부벌지대에 혜성같이 나타난 계곡미의 <녀왕>》이라고 불러왔다.

장수산은 오늘날 근로자들의 문화휴식터로, 탐승지로 꾸려져 누구나 즐겨 찾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대철
사진 본사기자 김혁철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홈페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

뒤표지: 백두산지구의 여름/김혁주

ㄱ-24088015641